

기술 더한 이미지, 보여지는 것 너머로 던지는 질문들



정한결작 '생존 : 폭력의 형태(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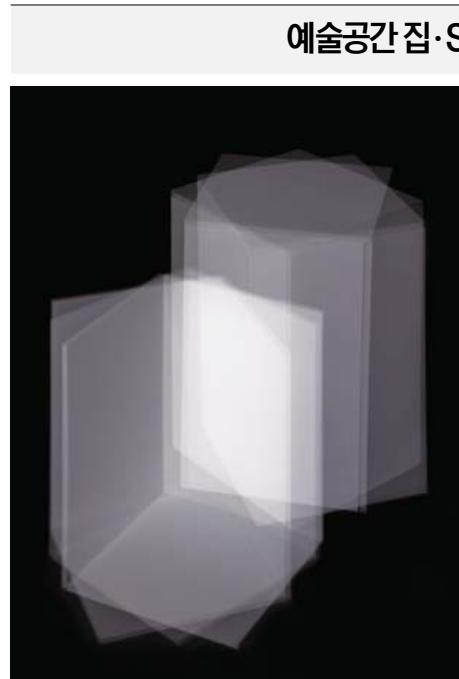
다양한 방식의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통해 그 너머의 감각과 질문을 풀어내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예술공간 집과 Space DDF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 'Technically Speaking'이 오는 7월6일까지 두 공간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시는 광주 동구에 위치한 예술공간 집(제봉로158번길 11-5)과 Space DDF(충장로46번길 8-8)에서 진행된다.

전시 제목 'Technically Speaking'은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기술적으로 말하자면'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이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으로 확장돼 해석되기도 한다.

전시에선 사진과 디지털 기술을 실험하는 다섯 작가의 작품 40여 점이 사진, 회화,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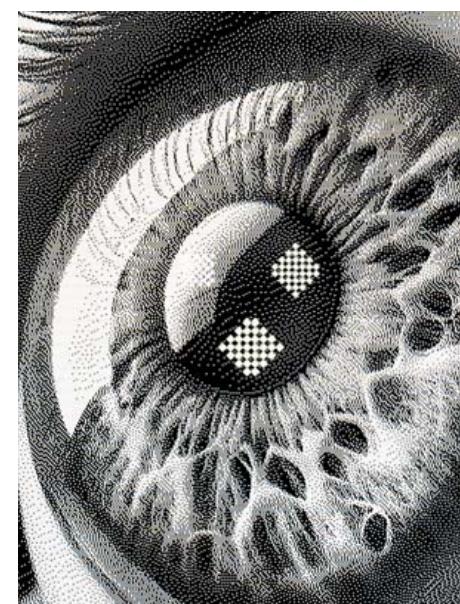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기술이 만든 이미지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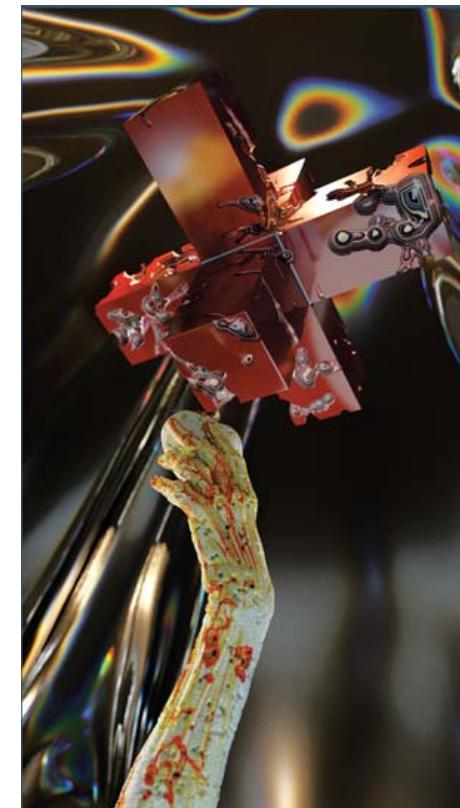
이현우작 'Solid Reflections #11'



정영돈작 '일출(물)의 궤도를 위한'



윤태준작 'Gaze'



노유승작 '누적된 집착 P001'

예술공간집·Space DDF 'Technically Speaking' 展…내달 6일까지

5명 작가 참여…사진·AI·그래픽 넘나드는 실험적 작품 40여점 선봬

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묻는다. 작가들의 작품은 단순한 시각 효과나 기술적 실험에 그치지 않는다. 각 작가는 사진의 개념부터 일상의 기억, 사회의 주변부까지 다채로운 서사를 이미지로 풀어낸다.

먼저 예술공간 집에서는 이현우, 노유승, 윤태준, 정한결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현우는 인공광과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사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가 만든 이미지를 광원으로

투사하고 다시 촬영하는 방식은 기존의 사진 개념을 뒤집는다.

윤태준은 선명하고 반복적인 사진과 그래픽 작업을 통해 이미지와 신체 감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한다.

노유승은 컴퓨터 그래픽, 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정체성과 내면을 시작화한다.

정한결은 사회의 주변에 위치한 존재들의 언어와 이미지를 수집하거나, 그 공간을 직

접 몸으로 오르내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개인적 기억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그려낸다.

한편 Space DDF에서는 정영돈의 작품과 함께 노유승, 윤태준, 정한결의 또 다른 작업이 소개된다.

정영돈은 아버지가 유년 시절을 담은 필름 위에 일출과 일몰의 태양 궤도를 촬영해 덧입히는 방식으로, 똑같은 하루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같은 작가라도 두 공간에 서로 다른 작품

을 배치해, 한 작가의 다양한 접근법을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전시의 흥미로운 지점이다.

기획자 송유빈은 "기술력이나 매체 실험 이 눈길을 끌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과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깃들어 있다"며 "화려한 스펙터를보다 차분한 시선으로 이미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상상력으로 덧입힌 소리의 잔상

승지나 개인전, 30일까지 장덕도서관 갤러리

30여 년간 작곡가로 활동해온 승지나 작가가 이번엔 붓과 조각칼을 들고 관객을 만난다. 장덕도서관 갤러리에서 열리는 승지나 개인전 '그림이 된 소리의 잔상'이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음악적 경험을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한 자리다. 음악과 소리의 파동을 시각적 상상력과 결합한 회화와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작자가 직접 해체한 바이올린과 사용하지 않는 현악기 조각들이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캔버스는 음악의 음표와 같이 둥근 원형으로 구성된다. 그 위에 음악의 동선이 시각화돼 표현된다. 바이올린의 현과 받침대, 몸통 일부에는 연주자들의 손길과 시간이 깃든 흔적이 담겨 있다. 또 작가는 작품에서의 주제와 변주 방식처럼, 바려진 바이올린의 형태를 변형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적 구조를 시각예술로 치환한다.

음악과 같이 작가의 작업 역시 시간성과 반복의 구조를 품고 있다. 이를 통해 음악과 미술이 서로 다른 감각의 언어를 쓰지만, 결국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장덕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승지나 개인전 전경.

전시 기간 중 29일 오후 4시에는 '그림이 있는 음악회'도 열린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G선상의 아리아', '트로이메라이', '자클린의 눈물', '윌킨 피아노소나티' 등을 연주하며 전시와 연계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승지나 작가는 "소리의 파동이 감각에 의해 색이나 형태, 물질적 덩어리로 새롭게 시각화되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라며 "작품을 통해 관객 저마다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음악적 열정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불빛으로 기록된 도심의 밤 풍경

김도엽 개인전 '도시 빛 기록'…내달 2일까지 충장22 갤러리

광주의 도심 풍경이 작가의 시선을 통해 밤의 이야기로 되살아난다.

갤러리 충장22는 오는 7월2일까지 김도엽 작가 초대 개인전 '도시 빛 기록, CITY SCAPE'를 연다. 이번 전시는 김도엽이 평생 살아온 도시의 밤 풍경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담아낸 신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에게 도시는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이자 거리의 불빛으로 기억되는 장소다. 태양보다 달빛이 더 진숙하다는 그는 익숙함이 이끄는 대로 붓질을 거듭해 화면 위 여러 겹의 색과 질감을 쌓아간다. 이러한 과정은 충동과 감성의 기록이며, 두터운 물감의 흔적은 도시의 일상과 사건을 고스란히 품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기의 발명 이후 '밤의 휴식'을 잊어버린 도시가 쌓아 올린 수많은 이야



'도시의 밤'

기들이 회화로 펼쳐진다. 도시의 드라마틱한 야경 속에서 작가는 개인의 기억과 역사적 정서를 불러내며, 표면 너머의 정서와 무의식까지 탐색한다.

/최명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